

“1980년 5월 시민군 등 8명 암매장 보안대서 소지품과 함께 사진 촬영”

5·18 계엄군의 고백

<1> 3공수 15대대 김연철 하사

“제가 옛 교도소 부지에 직접 파묻은 일부 시신 가운데 발굴되지 않은 나머지 시신은 나중에 (계엄군 등이) 다시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보안대 요원이 찍은 사진만 찾아내도 희생자들을 찾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강원도 태백에서 만난 김연철(61)씨는 5월 희생자 암매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다.

3공수여단 15대대 14지역대 통신대에서 하사로 복무했던 그는 지난해 5·18기념재단이 진행한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조사에 참여, 5·18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준 인물이다.

언론노출을 꺼렸던 김씨는 5·18 피해자와 광주시민들을 위해 어렵사리 인터뷰에 응했다.

김씨의 회상에 따르면 그는 1980년 5월 20일 새벽 광주역에 도착했다. 주둔지를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로 옮기던 21일 오후 첫 차가 사건이 터졌다. 그가 대대장과 선발대로 군용 지프를 타고 북구 각화동 농수산시장 인근을 지날 때 뒷차리 있던 병사가 팔에 총을 맞은 것이다.

그때까지 김씨가 속한 15대대에서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후 교도소와 광주~담양간 고속도로 방어를 맡으면서 실탄이 지급됐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실탄 860발, 슈류탄, 최루탄 등이 배급됐다. 부대원들에게 접근하는 차량은 무조건 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김씨의 부대원들은 22일 오전에 시민군의 트럭이 접근하자 M-16소총, M-60 기관총으로 일제히 조준사격을 했고, 트럭이 전복됐다. 김씨는 부대원과 함께 트럭에서 시신 3구를 수습해 시민 사망자 5명과 함께 교도소 남서쪽 인근에 가매장했다.

김씨는 지난 5·18재단의 암매장 발굴 조사 때 이들을 찾기 위해 해당 지역의 발굴 작업에 참여했지만, 매장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교도소에 가매장한 시신을 계엄군이 다른 곳으로 옮겨 암매장했다고 본다.

그는 “우리가 시신을 매장하려는 데 보안대 요원들이 시신에서 소지품을 모두 꺼내 희생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며 “이 사진이 굳이 관련 기관에 남아 있다면 당시 숨진 이들과 실종된 이들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공수여단 출신 김연철씨가 지난 8일 강원도 태백시 한 모텔에서 옛 광주교도소 배치도를 살펴보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대 통신하사로 진압군 참여 교도소·광주~담양 도로 방비 실탄 받고 발표명령 따라 사격 보안대 사진 실종자 찾기 단서 지난해 암매장 발굴조사 도와 이름·얼굴 밝히고 시민들에 사죄 참가 계엄군 증언 이어지기를

통신대 선임하사였던 김씨는 부대간 교신내용을 들을 수 있는 통신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5월 당시 진압작전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광주를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나눠 이른바 ‘싸움이 작전’까지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기억했다.

지난 1988년 광주청문회 때도 국회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가매장 사실을 제보하기도 했던 그는 5·18을 겪은 이후 공방 장애를 앓는 등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를 진실의 증언대로 끌어낸 동력은 죄책감이었다.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서 나고 자란 그는 “5·18 기간 의사촌 등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살았던 동생 4명이 세상을 떠났다. 내가 가해자 입장이 될 줄은 몰랐



천주교 5·18 도보순례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앞두고 13일 오전 천주교 광주대학교 청년사목국·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청년 600여명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정신 계승을 위한 도보순례를 시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다”며 “당시 최고 지휘부였던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별 4개까지 달며 영웅이 됐지만, 부하들은 그날의 그 무서운 사건에 대해 큰 죄책감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당시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다시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공개적으로 이름과 얼굴을 밝히는 건 광주시민들에 대한 사죄이자 다른 부대원들이 5·18에서 자유로워질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원도=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민주·평화 본격 세몰이

지방선거 D-30...광주 이용섭 대 김준배, 전남 김영록 대 민영삼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13일 광주에서 지방선거 필수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평화당은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찾아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호남 민심 잡기에 여념이 없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물난 속에 후보를 좀처럼 내지 못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평화당 양당 경쟁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과 민중당은 기존 정당에 실망하는 틈새 유권자를 파고들고 있다.

현재로서는 광주·전남에서 높고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날지, 광주·전남을 텃밭으로 여기고 있는 평화당이 민주당의 강세 속에서 선전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고공행진 중인 당 지지율을 등에 업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마치 본선 같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전열을 일찌감치 정비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를 비롯한 광주·전남 27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까지 마무리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불공정 시비, 고무출 갖대를 적용한 중앙당의 무리한 공천 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후보가 잇따면서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정책 경쟁보다는 후보 간 네거티브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일반 유권자들의 민주당 경선 참여율이 5%에도 못 미치는 등 상당한 민심 이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선거일까지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잡음과 사분오열된 당심을 어떻게 추스리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에 비해 뒤늦게 후보들을 확정된 평화당은 전열을 정비하면서 민주당과 일전을 준비중이다. 평화당은 전남지사 민영삼 최고위원을 확정했고, 광주시장 후보로는 ‘5·18 사형수’ 김준배 전 국회의원을 14일 최고위에서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평화당 지도부에 후보 승낙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최고위 인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평화당은 민주당의 견고한 지지율을 넘기 위해 지역별 맞춤 선거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을 총동원해 지방선거 후보들을 지원하고, 정당 간 경쟁을 통한 지역별 전선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일당 독점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선거가 지역연공을 쌓는 지방선거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아닌 정책과 인물 중심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과 민중당에서는 광주시장 선거에 나경태, 윤민호 후보를 각각 당의 얼굴로 내세웠고, 전남지사 선거에서 민중당은 이수성 후보를 내세웠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 진보진영의 리더로 꼽히고 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기초의원 선거에도 집중하면서 각 차지구 의회에 진보정당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北, 풍계리 핵실험장 23~25일 갯도 폭파

한국 등 국제기차단 취재 허용
트럼프 미 대통령 “감사하다”

북한은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갯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발표한 공보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핵실험장 폐기는 핵실험장의 모든 갯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봉쇄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핵실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실험장 주변을 완전히 폐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제7차 3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실행함으로써 회담 분위기를 띄우고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은 또 “북부핵실험장 폐기를 투

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내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기차단의 현지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며 “핵실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차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공보에서 전문가 초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특히 핵실험장 폐쇄를 취재하는 국제기차단의 편의 보장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원산을 연결하는 전용기를 보장하기 위해 영공개방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 방침에 대해 “감사하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성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광주시내 밀방

주최·주관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Venues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Asia Culture Center,
Sabeok Location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Hosts
Gwangju Biennale Founda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www.gwangjubiennale.org

비엔날레 운영사무처
41104, 광주광역시 북구 백련동 111
Gwangju Biennale Foundation
111 Bibeondan, Bukgu,
Gwangju, 61104 Republic of Korea
biennale@kwangjubiennale.org
T: +82 (0)62 808 4114
F: +82 (0)62 808 4229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상상된 경계들
IMAGINED BORDERS
9.7-11.11